

# “청년밥상 통해 나눔 이어지길”

### ‘청년밥상문간 제주점’ 김치찌개 3000원의 사랑 “주머니가 가벼워도 든든한 한끼 제공하고 싶어”

‘김치찌개 3000원’. 크게 오른 물가에 밥 한끼 사먹는 게 부담되는 요즘 같은 때에도 단돈 1000원짜리 3장에 배불리 밥을 내주는 식당이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이도2동에 문을 연 ‘청년밥상문간 제주점’이다.

청년밥상문간 제주점은 도내 첫 식당이지만, 전국에선 4호점이다. 같은 이름의 식당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1호점을 시작으로 서울에서만 3곳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 밖으로 뻗어 간 것은 ‘제주점’이 유일하다. 서울에 사무국을 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청년문간)이 제주에 터전을 둔 ‘인화로서적협동조합’(인화로)과 손잡고 영업을 시작했다. 청년문간이 운영 전반을 맡고 인화로서가 근무 인력의 교육·훈련, 채용 연계 등에 힘을 모았다.

시작은 청년들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바람이

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걱정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천주교 글라렛선교수도회가 2017년 처음 식당을 연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점 식당 한편에 걸린 설립 취지문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은 ‘청년밥상문간’이지만 청년만을 위한 식당은 아니다. 한끼 비용이 부담되거나 마음 편히 식사를 하려는 모두에게 문을 열어 둔다.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 농담 같지만 정말 ‘3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따끈한 찌개 한 냄비를 내준다. 거기에 공기밥과 송송은 마음껏 떠다 먹을 수 있다.

이 가격이 가능한 것은 온전히 ‘기부’ 덕분이다. 김치찌개에 들어선 안 될 김치를 비롯해 쌀, 돼지고기, 햄, 쌀 등 원재료를 마련하는

데도 기부의 손길이 이어진다. 고호진 인화로서적협동조합 분남창작소장은 “지금 가게를 얻을 때도 건물주 분이 주위 다른 가게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청년문간이 인화로서를 통해 채용한 직원 들만으로는 부족한 일손은 자원봉사자들이 채워 주고 있다.

많은 이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오픈한지 얼마 안 된 제주점에서도 따뜻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인 주문대 아래 놓인 모금함에 가지고 있던 동전과 지폐를 넣고 거거나 청년밥상문간 제주점 온라인 모금함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전하는 손님들도 있다. 이들의 기부는 밥 한끼가 간절한 청년과 이웃을 위한 식당에 보내는 ‘응원’이기도 하다.

고 소장은 “제주에서도 청년밥상문간을 통해 나눔이 이어졌으면 하는 게 청년문간의 바람”이라면서 “이곳이 활성화되면 청년들이 맘 편하게 갈 수 있는 점포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청년밥상문간 제주점은 한끼 비용이 부담되거나 맘 편히 식사를 하려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사진 왼쪽부터 고호진 인화로서적협동조합 분남창작소장과 서윤주 청년밥상문간 제주점장. 3000원 짜리 김치찌개. 김지은기자

###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일반 158명 등 167명 합격

제주지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67명이 최종 합격했다. 제주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7일 202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158명, IB학교 6명, 장애 3명이다. 이 중에서 장애 구분 모집은 당초 1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3명만 최종 합격했다. 신규 중등교사 임지는 오는 10일 발표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겨울바다 만끽하는 관광객 7일 제주시 각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청정해변을 걸으며 겨울 제주바다를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조리실무사 결원 51명... 학교 ‘발등에 불’

### 교육공무직 미달 사태에 최종 합격자도 27명 그쳐 51개교 하반기 채용까지 기간제 인력 활용 불가피

개학에 맞춰 3월 1일자로 제주지역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치될 교육공무직원 선발을 마쳤지만 조리실무사 51명은 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사태에 최종 합격자마저 응시 인원이 못미쳤기 때문이다.

7일 제주도교육청은 2023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원, 조리실무사 등 12개 직종 170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리실무사는 선발 계획 인원을 한참 밑돌았다.

조리실무사는 지난해 말 채용 원서 접수 결과 75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 27명만 합격했다.

결국 상반기 채용에서 조리실무사 48명을 선발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9월 1일 자 하반기 조리실무사 채용에 앞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도록 안내했다. 총 선발 규모는 의원면직 등을 포함 51교 51명으로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1학기에 근무할 조리실무사를 뽑기 위해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공개 채용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조리실무사 경험자 등이 있는 만큼 1학기 동안 활동할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교육공무직 공개 채용 직종과 인원이 역대 가장 많았고 선호 직종으로 응시자가 몰리면서 처음으로 조리실무사 지원자가 미달된 것 같다”며 “하반기 채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조리실무사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에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예측 불허의 일이 아니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입사한 조리실무사가 1년 내 중도 퇴사한 비율은 18~25%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각종 근골격계 질환과 폐암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 우여곡절 속 제주대병원장 공개 모집

신임 제주대학교병원장을 뽑기 위한 공개 모집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지난 6일 신임 병원장 공개 모집 일정을 공고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공모에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교원으로 10년 이상의 교

육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의료 경력이 있는 자가 응모할 수 있다.

제주대병원장은 송병철 전 병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10월 11일 만료된 후 차기 병원장을 선발하지 못해 그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제주대병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상민기자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축 임**  
CONGRATULATIONS

**제23대 광양초등학교 총동문회장**

**고영완**

제23대 광양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일동**

**축 선**  
CONGRATULATIONS

**(사)한국유소년승마단연합회장**

**강승욱**

(사)한국유소년승마단연합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원초등학교 제46회 동창친목회원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연동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주민자치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일중학교 18회 동창회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10대 제주문화원장**

**김양택**

제10대 제주문화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천청우회**  
회장 윤태근 의회원 일동